

# 화합·중흥위해 ‘날마다 새로운 날’

## 부산불교연합회 제10대 회장단 취임



7월 15일 롯데호텔에서 부산불교연합회 제 10대 회장단이 취임했다.

부산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제 10대 회장단이 취임했다.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취임식은 승가 320명을 비롯해 사부대중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0대 회장단 임원진은 회장에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수석부회장에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상임

부회장에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 등 총 66명으로 스님 61명, 재가불자 5명으로 구성됐다.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예부터 우리 불자들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더욱 지극한 신심으로 기도정진에 매진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앞으로 4년간 승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부산불교계의 중

지를 모아 부산불교의 화합과 중흥을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불교여성개발원 이영숙 부산지원장은 “재가는 승가를 공경하고, 승가는 재가를 바로 이끌어 승속이 화합할 것”을 염원하는 발언을 남겼다.

사무총장 자인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 발전 핵심 5대 비전으로 ▲부산불교의 대동단결 ▲교편수호를 위한 연합 조직체 상설운동 ▲호국승병장 사명대사행장, 동상 성역화 사업 추진 ▲성도재일(12월 8일) 기념행사 불행 정례회 ▲국제포교를 위한 부산 1사, 해외 1사 결연운동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불자(대학생)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은 축전을 통해 “제10대 회장단 취임을 계기로 부산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우리 부산이 살기 좋은 불국정토가 되도록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자비사상으로 불국정토 만들것”

### 인터뷰-제10대 신임회장 정여 스님

“부산은 한국 불교의 중심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불국정토를 만들겠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부산불교연합회 제10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사명 대사의 호국안민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부산발전을 위한 기도정진 및 불교의 교편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교 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부산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화과 소통이 되겠다”며 “각 불교 종파 간 유



대를 강화해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 평화로운 불성광명에 머물도록 정법홍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4년 동안 부산불교의 대소사를 이끌어 나갈 정여 스님이 이끄는 제10대 부산불교연합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불국토를 찾아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 “건강하게 여름나세요”

매일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1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점심식사를 마련하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 웬일인지 오전 9시부터 경로식당이 위치한 지하 1층부터 건물 어귀까지 어르신들이 하나둘 줄을 선다. 진임이(83) 할머니는 “집에 있어야 덥고 심심하지. 나오면 말뼉도 있고 맛있는 점심도 차려 주니까 얼마나 좋아”라며 오랜만에 만난 사회복지사의 손을 잡았다. 사회복지사 이승희씨는 “할머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라고 삼계탕 준비한 것”이라며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했다.

통해 삼계탕이 전달됐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 챙기는 게 어려운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리자며 시작한 ‘경로 식당’의 여름 보양식 제공 사업이 어느덧 10년째를 훌쩍 넘겼다. 이승희 사회복지사는 “겨울철 같겠지만 독거 어르신 중에는 식사를 잘 못하시고 갑갑한 집안에서 무더위를 견디다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다”며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평소 친한 할머니들과 어울려 경로식당을 자주 찾는 홍순선(62) 할머니는 “삼계탕을 참 맛있게 잘 만들었네”라고 요리 솜씨를 칭찬했다. 한번에 150인분

7월 16일 오후 12시 용호종합



## 여름 보양식 제공 사업 10년째

사회복지관 지하1층 경로식당은 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증진을 위해 ‘호도삼계탕’을 마련했다. 국민은행 메트로지점과 여러 자원봉사자의 후원으로 준비된 닭, 인삼, 찹쌀, 대추, 당귀 등 영양이 듬뿍 담긴 한방삼계탕은 지역 내 거주하는 결식 어르신과 장애인 150여명에게 제공됐다. 이곳 경로식당에서 12년째 자원봉사하고 있는 배기숙 조리실장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잡수신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요리했다”며 “삼계탕 한 그릇 잡수시고 1년 내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해 미처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 30여 명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을 준비해야해 허술할 법도 하지만,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들은 닭 손질부터 속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내기까지 4시간동안 더운 주방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 식사를 마치고 손수 빈 그릇을 주방까지 가져와 건네준 손수복(88) 할머니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라며 진심이 담긴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성 관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엔 홀로 힘겹게 지내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이 듬뿍 담긴 호도삼계탕을 드시고 울어들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생명존중 위한 간담회’ 7월 16일 부산시청서

부산지역 6대 종교인들의 모임인 ‘공동선실천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는 7월 16일 오후 4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생명존중을 위한 종교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교계에서는 정여(범어사 주지), 월강(금어사 주지), 성담(보현정사 주지), 한파(진영포교당 주지) 스님이 참석했다. 개신교 부산경찰교회 황성민 목사, 유교 성곡관유도회 부산본부 신준성 회장 등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표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앞으로 협의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동참 호소 선언문 발표, 평화와 생명을 위한 음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 영축사, 외국인 불교문화법회 봉행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가족 70여명 참석

양산 영축사(주지 각문)에서 7월 13일 오전 9시 외국인을 위한 불교 문화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는 중국, 스리랑카,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가족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양산 통도사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영축사에서 준비한 점심 공양이 이어졌다. 영축사 경내를 둘러본 후 법당에서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의 특별 초빙 법문이 마쳤다. 도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나와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올바르고 지혜로운 마음가짐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스리랑카 현지 스님의 통역을 통해 전했다. 이어 영축사 경

내에서는 다도 시연과 제기 차기 등 한국 전통 문화 체험행사가 열려, 낮선 이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축 이주민 지원센터는 영축사 주지 각문 스님과 신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과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 운영된다. 각문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생수가 남방 불교국가 출신들이데 한국에 와서 불교가 아닌 타종교가 마땅한 험터를 찾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불교도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

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힘든 한국 생활에서 꿈과 희망을 안겨 줄 봉사활동이야말로 참된 보살행”이라며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영축 이주민지원센터 이동욱 팀장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한반도 평화위한 서명운동 정토회, 7월 12일 발대식

한국인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튿날인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는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대표 유수)의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이번 발대식에서 북한에 식량 20만 톤을 긴급 지원하고, 정부 예산의 1%를 북한경제개발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정토회 김희숙 영남사무국장은 “현재 북반 땅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소리 없는 죽음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7-8월동안 최소 2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널리 퍼져 보다 많은 북반 동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한편 정토회는 5월 27일 부산항에서 밀가루 200톤을 북한으로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 (051)632-0064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

“ 자애로운 스승, 일타 대중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라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

제주 약천사 해인 스님의 신심, 원력 이야기

# 신심, 원력

설정 스님(덕숭림 수좌)\_ 해인 선사가 평소 애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거기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_ 사람들이 그토록 감동시킴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여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_ 장엄한치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흔히 트렸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

한국일보\_ 오척 단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자랑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_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_ 해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엔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_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부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린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 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_ 그가 펴낸 수행에세이에세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붙은 솜씨 한다. 때론 배움을 집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_ 해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전하는 법사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_ 왜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 유는 하나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_ 해인 스님이 그간 걸여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가사의함이 페이지마다 녹아있다. 법보신문\_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해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